

■ 김경문 올림픽 야구대표팀 감독

■ 광주일고 출신 MLB 탬파베이 2인 '시범경기 희비'

■ KIA 루키 이호신 일문일담

“亞예선에 사활 건다”

김경문(49·사진) 감독이 이끄는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 대표팀에 내려진 지상 과제다. 아시아 예선에서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내년 3월 최종 플레이오프 라운드에서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으나 바다까지 추락한 한국 야구 위상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올해 11월 본선 직행 티켓을 따내는 게 절대적이다.

“일본·대만 꺾고 직행티켓 꼭 확보”

한국, 일본, 대만이 치열한 싸움을 펼칠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예선전은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대만에서 열린다.

올림픽 주최국 중국이 본선에 자동 출전하면서 아시아 예선전에 배당된 직행 티켓은 딱 1장뿐이다.

2, 3위 팀은 최종 플레이오프로 밀려 내년 3~4월 대만에서 미주지역 예선 3, 4위 팀인 캐나다, 멕시코, 오세아니아 지역 1위 팀 호주, 아프리카 1위 팀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예선 2, 3위 팀 등과 본선 티켓 3장을 놓고 마지막 일전을 벌인다.

한국은 마지노선인 플레이오프에서 일말의 기대를 걸 수도 있으나 3위 이내 든다고 장담할 수 없어 아시아 예선전에서 일본, 대만을 확실하게 제압하고 티켓을 당당히 거머쥘 게 어려울 전망이다.

아시아 예선전이 정규 시즌이 끝나고 벌어지기 전에 우리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파를 동원하기도 용이하다.

한국 야구가 위기라는 의식을 야구인 모두가 절감하고 있어 해외파 선수들의 대표팀 합류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 10월께 한국시리즈를 마친 국내 선수



들도 한 달여 충분한 휴식을 통해 체력을 충전할 수 있고 실전감각을 급세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무엇보다 2003년 삿포로 아시아 선수권대회, 지난해 도하아시아

임 등에서 연달아 대만, 일본에 당했던 치욕을 제대로 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점에서 이번 아시아 예선전이 상심하는 바는 없겠다.

올림픽 본선에서도 실욕의 기회가 생길 수 있으나 아시아 최강 결정전인 이번 예선전에서 라이벌을 격파하고 우승한다면 그 짜릿함은 배가 될 게 분명하다.

6일 현재 올림픽 본선 직행을 확정할 나라는 중국과 미주 지역 예선 1, 2위 팀인 미국과 쿠바 등 3개국. 9월 유럽 지역 예선전이 열리고 아시아 예선은 가장 마지막에 치러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投

서재응 2이닝 퍼펙트 ‘웃고’

광주일고 출신 메이저리거인 서재응(30)과 최희섭(28·이상 탬파베이 데블레이스)이 웃고 울었다.

서재응은 올해 시범경기 첫 시험무대에서 완벽한 피칭을 구사하며 선발 로테이션 진입의 가능성을 밝힌 반면 최희섭은 3경기 연속 무안타의 부진에 빠졌다.

서재응은 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에너지파크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 2이닝 동안 안타, 볼넷 등을 전혀 내주지 않고 실점없이 막았다.

전날 팀 후배인 유재국(24·탬파베이)과 친구 김선우(30·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2이닝 무실점 패투에 이는 릴레이 호투. 서재응은 올해 시범경기 첫 출장에서 무결점의 피칭을 선보여 제임스 윌츠, 케이시 포섬, J.P 하웰 등과 선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서재응은 이날 특유의 칼날 제구력을 앞세워 지난 시즌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던 저스틴 모너가 버틴 미네소타의 강타선을 상대로 2회까지 단 1개의 안타도 내주지 않았고 3회 에드윈 잭슨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하지만 탬파베이에 새로 등지를 뜬 최희섭(28)은 1루수 겸 6번 타자로 선발 출장했으나 2타수 무안타에 그쳐 시범경기 3경



打

최희섭 3경기 무안타 ‘울고’

기 연속 무안타를 기록했다.

이날 탬파베이는 9안타를 효과적으로 집중시킨 미네소타에 2-4로 패했다.

한편 또 다른 광주일고 출신 메이저리거인 콜로라도 로키스의 김병현(28)은 8일 오전 3시 밀워키 브루어스를 상대로 시범 경기에서 두 번째로 등판한다.

콜로라도 구단 홈페이지는 6일 보도 자료인 ‘게임 노트’를 통해 김병현이 8일 애리조나주 투산의 하이 코벳필드에서 열리는 밀워키전에 조시 포그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한다고 예고했다.

김병현은 지난 4일 LA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전에 시범 경기 첫 선발로 출격, 2이닝 동안 안타 3개와 볼넷 1개를 내주며 1실점 했고, 이날 김병현에서 바통을 넘겨받은 포그는 2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8일 등판에서 김병현과 포그는 서로 순서를 맞바꾸 등판하고 포그가 이번에는 선발투수로서 자질을 테스트 받는다.

김병현과 포그는 팀내 5선발 경쟁을 펼치고 있고 현지 언론은 금야를 중 경쟁에서 패하는 선수는 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해 김병현은 이번 등판에서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게 급선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타격 타이밍 훈련 올 1군 진입 목표”

KIA 대졸 새내기 이호신(23)이 올 시즌 신인 돌풍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미야자키 전기훈련이 막바지로 접어들어 가운데 이호신은 참가중인 5명 중 1군 엔트리 진입이 확실시 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희대 출신의 왼손 외야수인 이호신은 빠른 발과 정교한 방망이가 주특기인데 왼바운드로 홈송구가 가능할 만큼 튼튼한 어깨를 자랑한다. 모든면에서 2006시즌 외야 부문 골든글러브 수상자인 톱타자 이용규(22)와 닮은 꼴이다.

지금은 이용규가 기량면에서 한발 앞선 선배지만, 서울 잠실중 시절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다.

이용규는 1년 선배인 이호신이 휘문고로 진학하자 그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덕수정보고를 선택했다고 한다.

타격도 괜찮다. 좌타자인 이호신은 대학 4년간 84경기에 출장해 타율 0.303(290타수 88안타)를 기록했다.

다음은 이호신과 일문일담. -올 시즌 목표는.

▲1군 엔트리 진입이다. 확실한 주전을 꿰차는 게 최종 목표다. 하지만 급하게 욕심부리지 않고 목표실현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겠다.

-일본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훈련은.

▲일단 수비는 자신이다. 현재는 타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타이밍을 잡기 위한 스윙 궤도를 훈련중이다. 그동안 몸쪽으로 오는 볼을 잡아 돌리는 스윙이었지만 현재는 팔을 뻗어치는 훈련을 하고 있다.

-타격감은 어떠한가.

▲지난해 남해캠프에선 타격감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일본 캠프에선 잘 맞아 나가고 있다. 스윙도 자연스럽게 타구도 쪽쪽 뺏어 나가 기분이 좋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은 일단 빠른 발이다. 100m를 12초에 주파한다. 그리고 어깨가 강하다. 반면 단점은 급한 성격이다. 이같은 성격으로 인해 경기 도중 혼자 급하게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데 앞으로 고쳐나아가야 할 점이다.

-올 시즌 각오는.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임하겠다.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고, 어떤 상황에서 투입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항상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힘쓰겠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승엽 3타수 1안타

히로시마와 시범경기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사할만에 안타 행진을 재개했다.

이승엽은 6일 야마구치현 우베 시민구장에서 벌어진 일본프로야구 히로시마 도요카프와 시범 경기에서 1루수 겸 4번 타자로 선발 출장, 3타수에 안타 1개를 때렸다.

이승엽은 1회 2사 1루에서 상대 좌투수 다카하시 겐오로부터 좌전 안타를 뽑아냈다. 지난 3일 소프트뱅크전(3타수2안타) 이후 3경기 만에 나온 안타였다.

그러나 4회와 6회에는 모두 삼진을 당했다. 이승엽은 6회 말 수비부터 오미치 노리요시로 교체 됐고 시범 경기 타율은 0.300(10타수3안타)을 유지했다.

이승엽은 이날은 3번 다카하시 요시노부, 5번 루이스 곤살레스와 중심 타선을 형성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타자들이 아직 감을 못 찾았 있어 활발한 타격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함평다이너스티CC(대표 이준희) 임직원들이 ‘오감만족 감동서비스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고객 서비스 제공을 다짐했다.

함평다이너스티 ‘오감만족 감동 서비스’ 결의



의 오감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준희 함평다이너스티CC 대표는 “올해는 회원들을 위한 오감만족 감동서비스 실천의 해로 정하고 전국 최고의 명문골프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골프장내 상쾌한 환경 조성

○-세계질 양진디 골프장 함평다이너스티CC(대표 이준희)는 지난 1일 전종사원이 참여한 가운데 ‘오감만족 감동서비스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오감만족 감동서비스’를 위해 고성능 스테레오 스피커 음향시스템을 설치해 내장객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고, 음식냄새 제거와 골프장내 모든 방향제 교체를 통해 상쾌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식음료팀을 직영운영 체제로 전환해 만족도 높은 최고급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클럽하우스 입구에 대형 그리스신 조각상 분수대를 설치해 내장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모든 홀의 그린 주변에 꽃을 심어 시각적인 볼거리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 매달 식음료 이벤트 등을 개최해 골프장에 와서 나갈 때까지 내장객들

남광주CC 리모델링 공사

○-남광주CC는 지난달 초부터 오는 30일까지 남아 사우나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다.

이에따라 3월말까지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내장객들에게 목욕료 5천원을 할인한다.

특히 남탕의 경우 노천탕을 추가로 조성해 또 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라커룸과 주차시 받던 서비스 요금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주차는 본인에 해야 한다.

남광주CC관계자는 “공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면서 “사우나 시설이 완공되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고객들을 모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